

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08. 12.11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8. 12.11(목) 10:0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과
담당과장	안내형 (2150-5450)	담당자	나상률 사무관 (2150-5454)

제목: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

(1)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율을 4% → 5%내외 수준으로 상향 조정

-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도로, 철도공사 등에 민간선투자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선투자 제도를 도입('08.6) 시행중
- 민간에서 선투자를 하는 경우, 선투자금액의 4%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사업비에 증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
 - 최근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 및 시중자금 유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'09년에는 인센티브율 적용을 국고채 금리수준(5%내외)으로 상향기로 함
-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앞으로 민간시공사의 적극적인 선투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사 조기완공으로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(2) 각 부처의 자율조정 권한을 확대하여 총사업비 조정 간소화

- 당초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사 낙찰가의 10%규모 금액을 자율조정한도액으로 설정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관리
 - 앞으로는 자율조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사항, 안전시설 보강, 연약지반 보강 등에 대해서 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협의없이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을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·시행
 -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건변화가 곧바로 총사업비에 반영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예산의 조기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- 동 제도는 행정절차 이행간소화 등을 통한 재정조기집행의 일환으로 '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됨

기획재정부 대변인